

2020. 11.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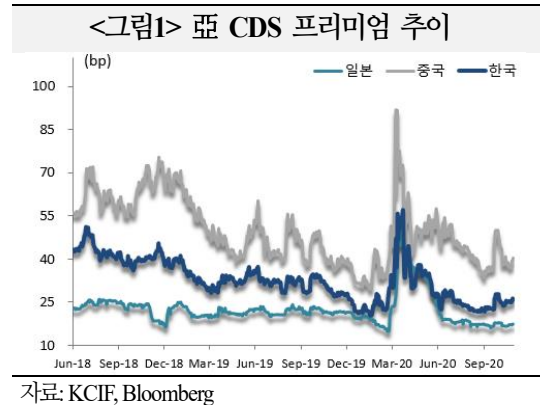
美 대선 불확실성, 코로나 우려 등으로 가산금리 상승

장원영 | 책임연구원(3705-6155)

- [유통시장] 美 경제지표(3분기 GDP, 실업보험 청구자 수 등)의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대선의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코로나 재확진 추세로 미국 및 유럽 주요국이 재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2020년 크레딧물 가산금리는 상승, CDS도 상승

- 2020년 크레딧물 가산금리 : IG, HY 상승 (Bloomberg Barclays Asia USD IG+2.3bp, HY+19.4bp)

- 한국물 가산금리는 보합세(-1bp~+3bp)
- 美 상원이 11.8일까지 휴회에 돌입하면서 대선전 추가 경기부양책 합의가 사실상 결렬 되었으며, 미대선 관련해서도 우편투표 확대로 선거결과 확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늘어나면서 위험자산(美주가 등)은 한주간 조정
- 2020년 크레딧물 역시 코로나 확진자수 증가로 3월 이후 처음으로 6일 연속 가산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미대선 이벤트 및 코로나 불확실성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나, 시장 전반의 변동성 확대로는 이어지지 않는 양상(GS)



- 2020년 CDS 상승 : 일본 +0.2bp, 중국 +3.2bp, 한국 +1.1bp, 말레이시아 +1.9bp, 태국 +4.9bp, 베트남 +5.5bp, 인도 +5.5bp, 필리핀 +2.1bp

- [발행시장] 10월 다섯째주 2020년 달러채(ex-Japan) 시장은 전주대비 감소한 약 \$68억 발행 (10월 넷째주 \$112억 발행)

- 10월 다섯째주는 지난주 활발했던 발행 대비 미대선이 다가오면서 다소 감소한 68억불 발행. 미대선 불확실성 영향으로 이번주 발행시장은 다소 한산할 것으로 전망되며, 대선 이후에도 발행에 나서는 발행사들이 다소 있을 수 있지만 11월 예상 발행물량은 작년 동기(370억불)대비 낮을 것으로 예상(JP Morgan)

<표 1> 주요 2020년 외화 공모채권 발행 현황

발행기관	종류	신용등급	발행일	만기年	통화	발행액억	발행금리	주문억	비고
한국토지주택공사	RegS	Aa2/AA-	20/10/27	23/11/3	USD	3	3T+48bp	-	-

<표 2> 한국계 가산금리

	발행액	만기	'19년말	10/23일	10/30일
외평채'29	10	6/19/2029	47	46	45
산업은행'24	5	10/1/2024	51	48	50
국민은행AT1	5	7/2/2024(1st call)	206	258	261
한국서부발전'22	3	7/22/2022	59	50	51
한국전력공사'24	5	6/24/2024	68	58	61

자료: KCIF 등. 단위: 각 통화 억, bp

<표 3> 2020년 주요국 CDS

	'19년말	10/23일	10/30일
한국	22	25	26
일본	20	17	17
중국	31	37	40
태국	23	45	50
인도	62	94	99

- [미국 IG 발행시장] 10월 다섯째주 IG발행시장은 전주대비 증가한 총 \$140억 발행(전주 \$130억)

- 10월 다섯째주는 지난주 대비 대체로 활발했으며 총 140억불 발행. 지난주 발행물들은 IPG대비 평균 25bp 축소되어 발행되었으며, NIP는 평균 5bp 수준
- 미대선 이벤트로 대체로 이번주 발행물량 또한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미대선 이후 시장이 안정적일 경우 발행에 나서는 발행사들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(JP Morgan)